

‘우리 시선’ 국제분쟁 기록물 잇따라

이라크·아프간·아프리카 내전 현장서 보고 느껴

“우리 눈으로 세계를 관찰…진정한 세계화”

《슬픔은 흘러야 한다》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어린이와 평화 : 박기범의 이라크 통신》…

《슬픔은 흘러야 한다》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지난해 초 KBS와 MBC는 공영방송에 걸맞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보도국 국제팀 기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KBS의 〈특파원 현장보고, 세계를 가다〉와 시사교양국 프로듀서들에 의해 만들어진 MBC의 〈W〉(월드 와이드 위클리 World Wide Weekly의 첫 글자를 땀다)가 그것이다. 봄 개편에 맞춰 편성된 이들 국제시사프로그램들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맘이 뻗 국제뉴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MBC가 국내뉴스와 연관이 있는 사건에 주목한다면, KBS는 순수하게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미국 CNN과 같은 서방 언론의 시선이 그대로 안방에 전달되던 기존 국제뉴스와 차별화된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방송사들이 제작비용이 많이 드는 국제 뉴스의 비중을 늘린 이유는 “매체환경이 급속도로 글로벌화됨에 따라 서구 중심의 외신보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독자적 시각을 담은 국제뉴스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방관자적 태도 아닌 평화위한 고민의 발로

이러한 변화는 출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편집자나 독자 모두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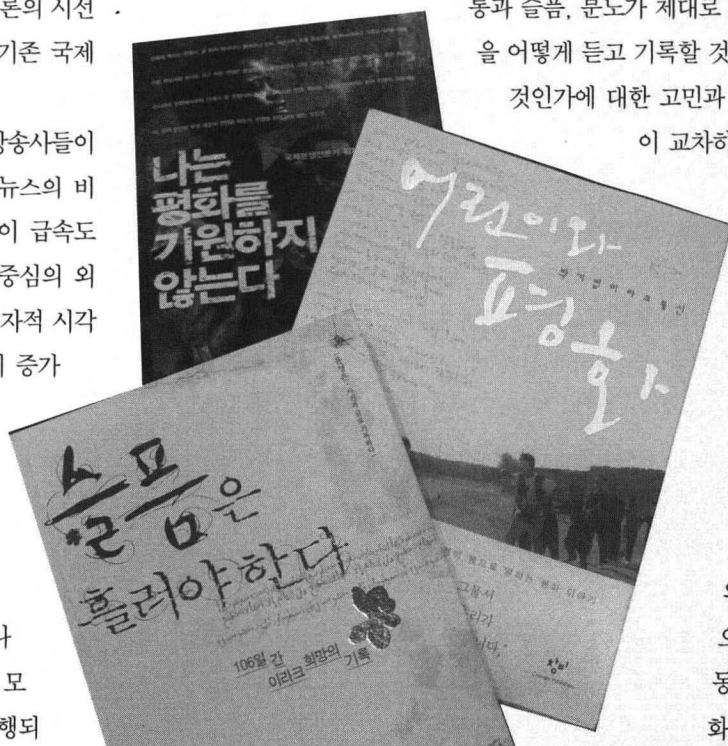
는 상황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듯 더 이상 낫 놓고 나라 밖 소식을 받아들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다.

《슬픔은 흘러야 한다》를 기획한 즐거운상상의 홍현숙 편집팀장의 고민에서 이러한 변화가 잘 드러난다. 이 책은 여성 평화운동가 윤정은 씨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106일간 이라크에 체류하면서 이라크인들의 삶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기록하고 있다. 홍 편집팀장은 “출간을 결정하기까지 사실 걱정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현실이 팍팍하기만 한데 누가 전쟁 이야기를 읽고 싶을까 생각하면서도,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 분노가 제대로 기록된 책도 없고, 전쟁의 고통을 어떻게 듣고 기록할 것인가, 어떻게 평화의 손을 내밀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담은 책도 없다는 생각이 교차하며 고민을 거듭했다”고 고백했

다. 결국 ‘이라크 사람들에게 선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고, 또 평화운동가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대범한 척, 강한 척하지 않는 솔직한 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역시 독자의 마음에도 가 닿지 않을까 판단해 출간을 결심하게 됐다.

《슬픔은 흘러야 한다》 외에도 분쟁지역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은 창비에서 나온 동화작가 박기범의 《어린이와 평화 : 박기범의 이라크 통신》과 지



형출판사에서 나온 국제분쟁전문가 김재명의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이라크전 통해 사람과 '희망' 사이의 본질적 관계 질문

《어린이와 평화 : 박기범의 이라크 통신》을 쓴 박기범은 2003년 2월, 이라크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주변의 만류를 물리치고 이라크로 들어간다. “누구보다 전쟁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학살 앞에서 이라크 아이들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박씨가 사선을 넘은 이유다.

지은이는 동화작가답게 살아남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강요당하는 어린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바그다드 거리에는 해시시와 본드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치는 어린 알리바바(도적)들로 넘쳐나고, 커서 미군을 물리치겠다고 아이는 미군 탱크 앞을 서성이며 달러를 구걸한다. 아무리 ‘평화’와 ‘나눔’을 외치며 친구로 다가서려고 해도 처지가 다른 그는 이곳에서 단지 ‘이방인이거나 선심을 베푸는 산타크로스’ 일 뿐이다. 지은이는 전쟁을 전후로 아이들의 손짓과 몸짓과 표정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면밀히 기록하고, 이를 통해 본질적인 의미의 희망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책제목 ‘어린이와 평화’는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안타까워하며 뜻을 모은 평화행동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스물한 개의 크고 작은 어린이문학·교육·문화 단체가 모여 시작한 이 운동은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 작가,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들과 함께 전쟁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는 박기범의 이라크행을 계기로 ‘박기범이라크통신(바끼통, cafe.daum.gibumiraq)’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박기범이 이라크로 떠난 뒤로 그를 아끼는 이들이 인터넷카페 ‘박기범이라크통신’을 열었고, 박기범은 이곳을 통해 이라크 소식을 전했다. 지은이는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파병을 막기 위한 시민단식모임-소망의 나무’ 농성에 이어 ‘중전과 철군을 위한 단식평화순례’ 길에 오르기도 했다.

유혈투쟁·전쟁·학살의 현장과 주역들, 생생한 기록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는 국제분쟁지역전문가로 활동해 온 김재명(뉴욕시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국민대 강사)씨가 국제 분쟁을 주제로 쓴 분석적인 해설서이자 현장 리포트다. 역설적인 제목을 단 이 책은 지구촌에서 터지는 전쟁과 분쟁, 테러가 무엇인지, 누가 왜 유혈 투쟁을 벌이는지를 분쟁 현장에서 추적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살아 있는 전설’ 야세르 아라파트와 하마스의 정신적인 지주인 세이크 아메드 야신, 시에라리온 내전의 손목 절단 테러 전술로 악명이 높은 포데이 산코, 체 게바라와 함께 남미 5개 국 여행길에 오른 알베르토 그라나도 등 서방 기자들도 인터뷰하기 힘든 반군 지도자, 정치지도자와 만난 내용이 담

겨 있다. 사진전문학교 뉴욕 ICP에서 1년간 포토저널리즘을 공부한 저자의 생생한 전선사진이 실려 그 현장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전쟁으로 이익을 챙기는 ‘어둠의 세력’들을 고발하고 있는 지은이의 주장은 자못 비장하다.

“나는 세계의 여러 분쟁지역을 취재하면서 전쟁의 처참한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지구촌 평화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영원한 평화는 현실적으로 아주 먼 곳에 있음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전쟁과 분쟁, 테러의 본질을 파헤쳐 가면 갈수록 허울 좋은 명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자신들의 거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대량 학살과 인종 청소, 조직적인 강간 등도 서슴지 않는 세력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본 전쟁은 항상 이들에 대항하는 소수자와 약자, 못 가진 자들의 싸움이었다. 현실적으로 ‘영구 평화’가 불가능하다면, 나는 차라리 평화를 기원하기보다 아득한 절망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수자와 약자, 못 가진 자들의 정의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쪽을 택하겠다.”

서구의 어떤 통신사나 방송사에서 전하지 않는 말을 그거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집에서 외신이 전하는 TV를 보지 않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땀을 흘렸기 때문이었다.

미국·유럽 아닌 우리 눈으로 세계 바라봐야

꼭 분쟁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기록해야 할 곳은 많다. 멕시코에서 7년 반 동안 거주하며 마야의 문명을 연구한 한양대학교 송영복 교수는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박사논문에서 논문 〈고대 마야의 노예, 노비제도 Esclavitud y servidumbre entre los mayas prehispanico〉를 통해 마야가 철저한 계급사회였다는 학계의 정설을 정면으로 반박해 파장을 일으켰다. 송 교수는 “서양 사람이 마야의 원주민만 마야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마야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세계화는 미국이나 유럽의 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또 다가가 이야기를 나눌 때 가능하다”고 설교했다. **▶▶▶**

취재 신동섭 기자